

# 아내의 오해

박 원 진

(강남소방서 방호과)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소방에 투신한지 어언 5년이 지났다.

82년 3월1일 서울소방본부에서 119 구급대를 발족시키면서 구급요원을 모집하였다.

나는 구급대원으로 선발되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교육을 1주일간 받았다. 다른 동료들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군생활에서 의무병과를 받았기에 교육기간동안 한결 수월하였다.

1주일간 교육을 마치고 원대복귀하여 지령실에서 119 구급신고를 기다리면서 나 나름대로 출동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있는데 긴급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잠실 1단지 아파트에 도착하고보니 환자는 4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발목과 팔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 보기에다 흉칙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의 아우성속에 빨리빨리 하는 소리가 귓전을 울리며 부목을 사용할 겨를도 없이 강남시립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귀소하고 보니 시트와 작업복은 온통 피투성이였으며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흘렀다.

처음 당한 일이라 어색하였지만 그래도 멋지게 잘 처리하였고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환자가 접수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은 조금씩 쌓여갔는데 이번엔 산모를 이송하게 되었다. 4월14일 새벽 3시39분 강동구 장지동 269-7에서 35세된 주부가 3세된 사내아이를 업고 불광동 소재 일신병원으로 가자고 요청하는 순간 우리 대원들은 짜증을 내고 말았다.

거리가 너무 멀어 왕복 2시간은 족히 소요되어 완전히 잠을 설쳐야 될 지경이었다.

산모는 구급차에 오르자마자 몸이 불편한지 실례한다는 말을 하고 시트에 눕고 말았다.

3세된 사내아이를 안고보니 다른 부인의 남편이 된 기분이었다.

본서에 무전교신 후 SOS 후송 작전이 시작되었다. 잠실대교를 지나 워커힐 입구에 이르니 산모는 가끔 진통을 하기 시작하였다. 산모의 마음으로 좀더 빨리 달렸으면 싶어서인지 가끔 어디까지 왔느냐고 묻기 시작하였다.

마장동을 지날무렵 급기야 산모는 특이한 음성으로 신음하기 시작하며 얼굴은 창백하고 다리

를 꼬면서 몸을 비틀기 시작하였다.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직감으로 느끼고 사내아이는 동료 박용씨에게 맡기고 산파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땀을 닦아주고 손잡지를 끼워 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중앙청을 지나 사직터널을 지날 무렵 산모는 어머니를 연신 되풀이 하였다. 순간 나도 첫애를 낳을 때 아내가 진통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으러 간 사이에 순산한 것을 생각하니 새삼 여자의 고통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이 순간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본서에 무전교신을 하여 의사들이 수술준비를 하고 대기토록 조치하고 응급실에 도착하여 바로 수술대에 오르게하고 보니 이게 웬일일까? 당직의사의 말이 아기가 거꾸로 섰으니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므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는가.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산모의 모습을 뒤로하고 강변도로를 따라 귀서하고 보니 동은 흰히 트이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후 산모가 어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하였는데 무사히 옥동자를 낳았다는 산모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그날 좀더 친절하게 못해준 것이 끝내 아쉬웠다.

가끔 동료들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이런 화제를 들려주곤 하였는데 드디어 구

급활동으로서는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를 맞게 되었다.

4월20일 새벽 5시 강동구 성내동 120-17에서 연탄가스중독사고가 접수되어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애절한 사이렌소리에 박자를 맞추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머리에 되새기고 있었다.

5시16분경 현장에 도착해본즉 아가씨 2명이 완전히 실신하여인사불성이었다. 재빨리 상태를 살펴본 바 호흡은 정지되고 맥박만이 가늘게 뛰고 있지않는가. 토해낸 오물과 배설물의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입주위에는 콧물과 너저분한 거품등이 묻어있어서 접근조차 하기 싫었다.

더우기 이웃 할머니는 김치국물을 먹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니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무지하였는지 알것만 같았다.

우리는 몰려든 주민들을 정리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러나 호흡이 정지되면 4분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동시에 이 아가씨들의 생명은 결국 내손에 달렸다는 강한 사망감이 솟아올랐다. 병원으로 가기까지는 최소한 10분정도가 소요되므로 4분이내에 소생시키지 못하면 시체를 이송하는거나 마찬가지였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니 약간 지저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들것으로 싣고 내리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동료와 함께 한 사람씩 무거운 줄도 모르고 안아서 구급차에 실은 후 강남시립 병원으로 차를 몰게 했다.

차안에서 어떤 아가씨부터 소생시켜야 할지. 입장이 난처해졌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후일을 생각하여 예쁜아가씨부터 인공호흡을 실시하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런 경우 누구든지 입장은 거의 비슷하지 않음는지...

배운 것을 되새기며 자세를 편안하게 한후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4회는 빨리하고 이후부터 5초에 1회씩 하나, 둘, 셋, 넷, 흑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6분가량 지날 무렵 "흑" 하면서 숨이 트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1분만에 6~7회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아가씨에게는 재빨리 air way (공기를 통하게 기도에 꽂아주는 기구)를 꽂아주고 의식이 없는 다른 아가씨에 대해 다시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겨우 잠실 2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병원까지는 아직도 4~5분대의 거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환자 가족들은 아이고 소리만 연발하고 울기만 하면서 연신 달려달라는 말 밖에 하지 않았다.

병원 정문에 들어설 무렵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또 한 아가씨가 의식을 찾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맥박 테스트를 받게 했다. 그리고는 고압산소기에 넣어 모두 소생케 하는 기쁨을 얻었다.

환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동시 안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서로 돌아오자 나는 조금전 인공호흡때 상했던 비위를 끝내 참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당직 동료들이 이른 새벽부터 웬 구역질

이냐고 하면서도 장한 일을 하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나를 더 한층 기쁘게 해 준것은 만약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들 두아가씨는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이라는 당직의사의 진단서였다. 이제 구급업무에 관한한 어느정도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은 비번이라 저녁밥을 먹으며 처에게 자랑삼아 장한 일을 했노라고 새벽에 있었던 인공호흡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아내는 금방 시큰둥해 하면서 짜증을 내기에 왜그러느냐고 하였던니 미용사 처녀들이라 오죽 기분이 좋았겠으며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생겼다고 하면서 엉뚱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에게 그렇지 않음을 이해 시키느라 혼이 났다.

다음날 출근을 하지마자 환자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전화를 받았으며 그후 환자로 부터도 감사의 편지가 왔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은의 편지로구나 하고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좀더 일찍부터 사회에 이바지하지 못한 것이 스스로 후회스러워지기도 했다. 그동안 250여명을 이송하면서 혹시 잘못된 일은 없을까 하는 반성과 아울러 앞으로는 더욱더 국민들을 위해 친절하고 참다운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여러 동료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제몽, 그리고 여러가지 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구급활동업무는 더욱더 알찬 결실을 맺게 될것이 틀림없을 것이다.